

SRI

정책리포트

2018. 10. 30.

수원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이영안* · 송화성**

*도시행정연구실 연구위원, yalee@suwon.re.kr

**재정경제연구실 연구위원, hssong@suwon.re.kr

요약

- 수원시의 1인 가구 수는 전체 가구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 필요
- 1인 가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로 해외 주요 국가들은 1인 가구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후,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1인 가구에 대한 현황 파악이 미흡하여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이에 따라 수원시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 제언

정책제언

- 수원시 1인 가구 지원정책
 - ① 수원형 요양보험서비스 개발
 - ②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
 - ③ 1인 가구의 안전서비스 확대
 - ④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지원
 - ⑤ 노후 소득보장정책 강화
 - ⑥ 1인 가구의 가족 인정 및 실태조사를 위한 조례 제정
 - ⑦ 지속적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세대별 1인 가구의 공동생활가정 추진

KEYWORD_ 1인 가구, 삶의 질, 저출산, 고령화

SRI 정책리포트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수원의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수원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I. 분석의 배경 및 목적

1 분석의 배경

-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일반가구의 감소와 함께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음
 -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00년 약 222만 가구(전체가구 대비 15.5%)에서 2015년 520만 가구(27.2%)로 급증하고, 2045년에는 809만 가구(36.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장래가구추계: 2015~2045년)
- 수원시의 경우 2015년 1인 가구는 114,246가구로 2010년 대비 21,377가구(23.0%) 증가함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24.9%로 가장 많고, 20대(22.7%), 40대(17.5%), 50대(14.9%) 순임
 - 성별로 보면 20~50대는 남성 1인 가구가 여성보다 많은 반면, 60대 이상은 여성 1인 가구가 남성보다 많음(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2017)
- 특히, 수원시의 1인 가구 수는 27.4%로 전체 가구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1인 가구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임

2 분석의 목적

- 수원시 남녀 1인 가구에 대한 현황과 실태 분석을 통하여 다가올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고,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1인 가구 관련 제도 분석
 - 수원시 1인 가구 현황 분석
 -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언

II. 1인 가구 관련 제도 분석

1 1인가구의 개념 및 특성

- 통계청(2005)에 따르면, 1인 가구를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즉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함
- 1인 가구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이며, 일반 가구와 다른 특성을 나타내므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OECD 국가의 1인 가구는 국가마다 상이하나 평균 27.7%로 약 4가구 중 1가구는 1인 가구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의 고령화, 비혼의 증가, 개인주의적 가치관 등의 변화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대구여성가족재단, 2013)
- 1인 가구의 증가 원인으로는 가치관 변화인 개인적 측면과 상황 변화로 인한 사회적 측면 등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개인적 측면은 가족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 변화로 가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함
 - 가족에 대한 의미는 전통적인 대가족 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보다는 가족이 중심이었으나, 현재 사회·경제적 환경이 변화하면서 가족이라는 울타리 보다는 개인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
 - 사회적 측면은 학교, 직장 등 개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 영위를 위해, 혹은 노년층의 홀로서기 등으로 독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함
 - 청년층은 학교와 직장생활을 위해 가족으로부터 독립하고 있으며,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경제적인 문제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
 - 반면, 노년층은 자녀를 통한 노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자녀와 독립하여 생활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특정 세대에 집중화 되어 있지 않으며 청년, 중년, 노년 등 전 세대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으며, 연령에 따라 1인 가구의 특성이 다름(이여봉, 2017)
 - 청년층의 1인 가구는 결혼이 필수라고 인식하지 않는 결혼에 대한 태도로 인한 자발적 1인 가구와 경제난으로 인한 고용 및 소득, 주거의 불안정으로 인한 비자발적 1인 가구가 함께 공존하고 있음

- 중년층의 1인 가구는 이혼의 증가, 자녀 교육으로 인한 분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노년층의 1인 가구는 고령화와 함께 성인 자녀와 동거를 원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적으로 여성의 수명이 긴 것을 감안하면 여성 노인의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음

2 1인 가구 관련 제도 및 정책

- 정부는 증가하는 1인 가구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원을 위한 정책에 집중하고 있음
 - 정부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주거지원, 안전지원, 건강검진지원, 재정지원, 여가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으로 보기에는 어려우며,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은 사실상 주거지원에 한정되어 있음

[표 1] 1인 가구 지원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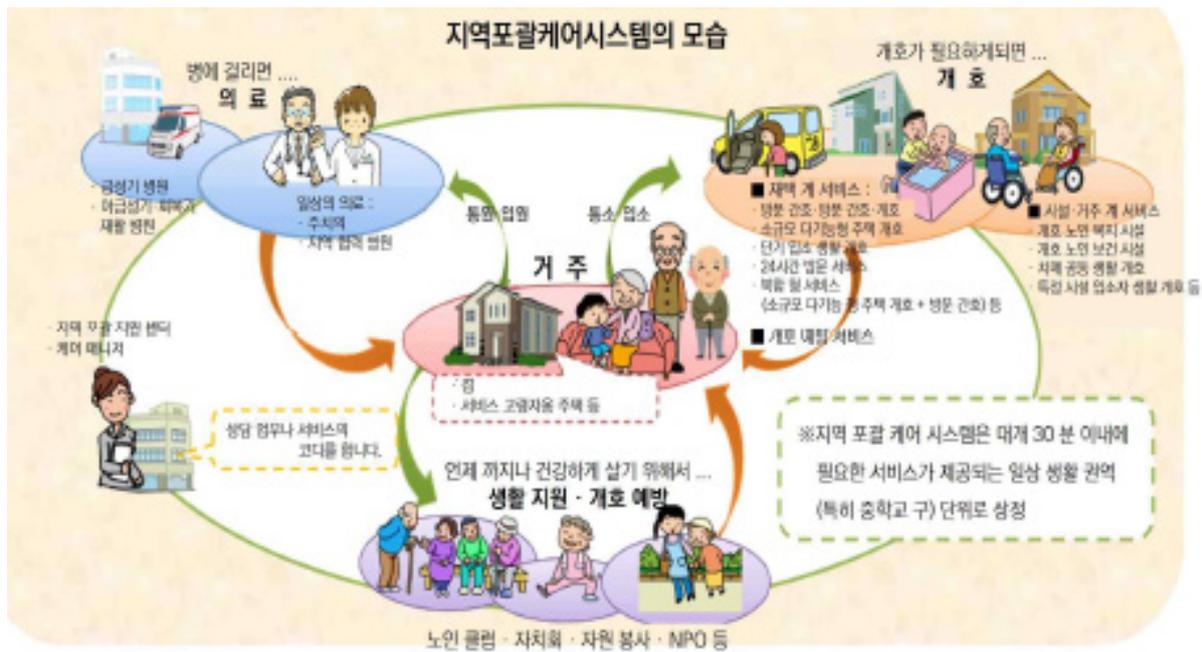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LH 공사의 행복주택, 원룸형 임대주택, 청년협동조합 공공주택, 희망하우징, 두레주택, 대학생 전세임대 등
안전지원	• 성범죄자 알림e, 여성·학생 안전귀가 지원 서비스, 무인택배보관함 운영, SOS 국민안심 서비스, 편의점의 여성 안심지킴이집(서울) 등
건강검진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무료 건강검진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재정지원	• 주택담보노후연금 • 고용노동부의 여성 일자리,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지원 • 최저생활 및 자활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 장기요양급여 제공
여가지원	• 노인복지관, 경로당 및 노인교실 운영

자료: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www.easylaw.go.kr>)

- 경기도(19.7%)와 서울시(21.4%)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지역(KB 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7)으로,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경기도는 주거부담을 줄여주는 주택정책뿐만 아니라, 안전한 생활을 위한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여성 1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원룸, 단독주택, 다가구 밀집지역 주변을 중심으로 여성 안심무인택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공간을 제공하는 ‘카네이션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주거시설의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지급, 전기나 도시가스 등의 난방 에너지 구입비 지급 등의 생활종합대책이 마련됨(daily pop, 2018년 4월 20일자)
 - 서울시의 경우 연령별 다양한 1인 가구 지원을 위해 2016년 국내 최초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기본 조례”를 제정함
 - 조례의 목적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복지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가 1인 가구에 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1인 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을 가져오고 더불어 사회적 연결망 구축을 통해 공동체 회귀와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는데 있음
 - 서울시의 1인 가구 관련 조례는 서울시 4대 사회혁신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청년, 마을, 사회적 경제, 인생이모작 사업을 포괄하며, 1인 가구 관련 정책은 청년과 중년, 노년을 아우르는 세대 통합형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음(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6)
- 수원시는 1인 가구를 위한 체감형 안전 도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 주거실태 조사를 통해 ‘수원형 주거기준’을 설정함과 동시에 ‘수원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함(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 2017년 12월 27일 보도자료)
 - 수원시의 체감형 안전 도시 정책은 여성 1인 가구를 위해 보안전문업체의 방범용 보안시스템을 설치하는 ‘싱글우먼 하우스 케어’,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응급전화기 게이트웨이와 가스감지센서, 화재감시센서, 활동량감지센터, 무선외출 버튼 등의 장비가 노인복지센터와 연결되는 ‘U-Care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음(대구여성가족재단, 2013)
 - 수원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은 공공임대주택 비율 향상, 집수리 지원 확대, 저소득 가구 임대료 지원 등이 포함됨

3 해외 1인 가구 정책 사례

- 독일은 OECD 국가 중에서도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국가로, 1인 가구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독일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높은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집세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세대 주택 계획을 통해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 주거공간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가족의 기능을 대체하고 있음(장민선, 2016)
- 프랑스 역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의 1인 가구가 44%에 이르는 등 이에 대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서울시복지재단, 2017)
 - 프랑스는 세대별 1인 가구 원인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 노년층은 정서적 돌봄지원, 청년층은 주거지원 등으로 원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노인 1인 가구를 위한 주요 지원 정책은 간병인 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정도우미제도, 사각지대 노인을 위한 수당, 주거비용 지원 등 별도의 정책과 함께 경제상황과 건강에 근거하여 사회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요 지원 정책은 개인별 주거수당, 임대아파트 지원, 등이 있으며 사회연대보증,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 일본의 경우 1인 가구의 고독사, 사회적 고립 등이 사회문제로 확대되면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인천발전연구원, 2017)
 - 일본은 도쿄 전 가구 중 1인 가구가 45.9%로 나타나 자치구별로 1인 가구 주택 건축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거주환경과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욕실 및 주방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인 ‘코하우징(co-housing)’과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일상적인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위해 안심생활창조사업을 통해 1인 가구가 지역 사회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이동, 교류, 돌봄, 권리옹호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생활근공자의 자립을 위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도 가능한 한 스스로 익숙하게 살았던 지역에서 마지막 까지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자료: 후생노동성 <http://www.mhlw.go.jp>; 인천발전연구원, 2017 재인용.

[그림 1]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Ⅲ. 1인 가구 현황

1 가구원수별 가구 점유 현황

-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과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4인 가구수는 감소된 반면 1인 가구의 수는 급속히 증가되고 있음
 - 프랑스는 세대별 1인 가구 원인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 노년층은 정서적 돌봄지원, 청년층은 주거지원 등으로 원인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반면에 4인가구는 2000년 3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7년에는 13.4% 감소하여 1인 가구의 증가폭만큼 감소됨
 - 1970년대 산업화를 거쳐 부부와 자녀 2명으로 대표되었던 4인가구의 핵가족사회가 점차 해체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가족형태가 1인과 2인의 소규모가구로 재구성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가구원수별 가구수 변화 추이는 전국 현황과 동일함

[표 1] 1인 가구 지원 제도

가구원수	구분	2017	2016	2015	2010	2005	2000	'00년대비 '17년
1인 가구	전국	28.6%	27.9%	27.2%	23.9%	20.0%	15.5%	13.0%p
	경기도	24.4%	23.8%	23.4%	20.3%	16.9%	12.6%	11.8%p
2인 가구	전국	26.7%	26.2%	26.1%	24.3%	22.2%	19.1%	7.7%p
	경기도	24.9%	24.3%	24.2%	21.6%	19.4%	16.4%	8.5%p
3인 가수	전국	21.2%	21.4%	21.5%	21.3%	20.9%	20.9%	0.4%p
	경기도	23.0%	23.0%	22.9%	22.7%	21.7%	21.6%	1.4%p
4인 가구	전국	17.7%	18.3%	18.8%	22.5%	27.0%	31.1%	-13.4%p
	경기도	21.0%	21.7%	22.1%	26.3%	31.0%	35.4%	-14.4%p
5인 가구	전국	4.5%	4.8%	4.9%	6.2%	7.7%	10.1%	-5.6%p
	경기도	5.2%	5.5%	5.6%	7.0%	8.4%	10.5%	-5.2%p
6인 가구	전국	1.0%	1.1%	1.1%	1.4%	1.7%	2.4%	-1.4%p
	경기도	1.2%	1.2%	1.3%	1.6%	1.9%	2.5%	-1.4%p
7인 이상 가구	전국	0.3%	0.3%	0.3%	0.5%	0.6%	0.9%	-0.6%p
	경기도	0.3%	0.4%	0.4%	0.5%	0.7%	1.0%	-0.7%p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세대 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수정

- 수원시의 경우, 전국 현황과 동일하게 4인 가구수는 감소된 반면 1인 가구의 수는 급속히 증가되고 있음
 - 2000년 수원시의 1인 가구수는 14.3%로 40,667가구였지만, 2017년에는 28.1%인 125,011가구로 13.8% 증가된 것으로 조사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세대 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수정

[그림 2] 전국 및 수원시 1인 가구 점유율 추이

- 반면, 4인 가구는 2000년 36.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2017년에는 15.4%p 감소하여 1인 가구의 증가폭 이상으로 감소되고 있음
- 이는 기존에 거주인인 수원시의 4인 가족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식 세대가 독립 가능한 성인으로 성장하여 가구수의 분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유사 규모의 타 지자체와 비교시, 수원시의 1인 가구 비중은 4개 지자체 중 가장 높음
 - 수원시는 유사 규모의 타 지자체에 비하여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은 반면, 2인 가구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이는 첨단산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수원시의 특성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혼의 젊은 노동 인력이 집중적으로 거주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으로 추정 가능함(타 지역 대비 방위산업체가 집중된 창원시의 경우도 1인 가구수가 높음)

[표 3] 2000년~2017년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 가구원수별 가구수 비중

가구원수	구분	2017	2016	2015	2010	2005	2000	'00년 대비 '17년
1인 가구	수원시	28.1%	27.4%	26.7%	24.8%	20.5%	14.3%	13.8%
	고양시	22.2%	21.6%	21.3%	19.2%	16.0%	10.0%	12.2%
	용인시	20.4%	19.8%	19.3%	15.1%	12.7%	11.9%	8.5%
	창원시	26.7%	26.2%	25.6%	22.5%	-	-	4.2%
2인 가구	수원시	22.2%	21.6%	21.5%	19.5%	17.7%	15.3%	6.8%
	고양시	25.1%	24.6%	24.4%	20.5%	18.1%	14.9%	10.2%
	용인시	23.9%	23.2%	23.1%	21.2%	19.8%	15.9%	8.0%
	창원시	25.9%	25.1%	24.8%	23.0%	-	-	2.9%
3인 가구	수원시	22.2%	22.2%	22.1%	21.3%	20.2%	21.2%	1.0%
	고양시	24.6%	24.6%	24.4%	23.2%	21.8%	22.4%	2.2%
	용인시	24.4%	24.5%	24.4%	24.1%	22.8%	21.6%	2.8%
	창원시	23.0%	23.1%	23.1%	22.7%	-	-	0.3%
4인 가구	수원시	21.4%	22.3%	22.9%	26.1%	31.6%	36.8%	-15.4%
	고양시	21.7%	22.4%	23.0%	27.9%	33.2%	38.8%	-17.1%
	용인시	23.8%	24.5%	25.0%	29.4%	33.2%	36.3%	-12.5%
	창원시	19.0%	19.7%	20.4%	24.5%	-	-	-5.5%
5인 가구	수원시	4.9%	5.2%	5.4%	6.5%	7.9%	9.6%	-4.7%
	고양시	5.0%	5.3%	5.4%	7.0%	8.5%	10.8%	-5.7%
	용인시	5.8%	6.1%	6.2%	7.8%	8.7%	10.6%	-4.7%
	창원시	4.3%	4.7%	4.9%	5.9%	-	-	-1.5%
6인 가구	수원시	0.9%	1.0%	1.1%	1.3%	1.5%	2.1%	-1.1%
	고양시	1.1%	1.2%	1.2%	1.6%	1.7%	2.4%	-1.3%
	용인시	1.3%	1.4%	1.5%	1.8%	2.0%	2.7%	-1.3%
	창원시	0.9%	0.9%	1.0%	1.1%	-	-	-0.2%
7인 이상 가구	수원시	0.2%	0.3%	0.3%	0.4%	0.5%	0.7%	-0.5%
	고양시	0.3%	0.3%	0.3%	0.5%	0.6%	0.9%	-0.6%
	용인시	0.4%	0.4%	0.4%	0.6%	0.7%	1.1%	-0.7%
	창원시	0.2%	0.2%	0.3%	0.3%	-	-	-0.1%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세대 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수정

2 성별 1인 가구 점유 현황

- 우리나라의 전체 성별 1인 가구수의 분포는 여성이 많지만, 증가율은 남성 1인 가구가 더 높음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1인 가구수 중 여성 가구수는 2,827,828가구로 남성의 2,791,849가구보다 많은 반면, 2010년 이후 7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이 3.9%인 반면 남성이 6.4%로 높아 남성이 여성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됨
- 경기도는 남성 1인 가구가 여성 1인 가구보다 많음
 - 경기도는 2000년 이후 남성 1인 가구가 여성 1인 가구수를 추월하였으며, 남성의 연평균 증가율이 여전히 여성보다 높아 그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급증한 1인 가구수의 증가 추세는 2010년 이후 다소 완화됨
 - 2000년부터 2010년 사이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된 1인 가구수의 증가세는 2010년 이후 다소 완화되고 있으며(연평균 증감율 : '00년~'17년 9.0% ▶ '10년~'17년 5.1%), 남성 세대와 여성 세대 간 증가율 격차도 소폭 완화되고 있음(연평균 증감율 : '00년~'17년 11.5%, 7.1% ▶ '10년~'17년 6.4%,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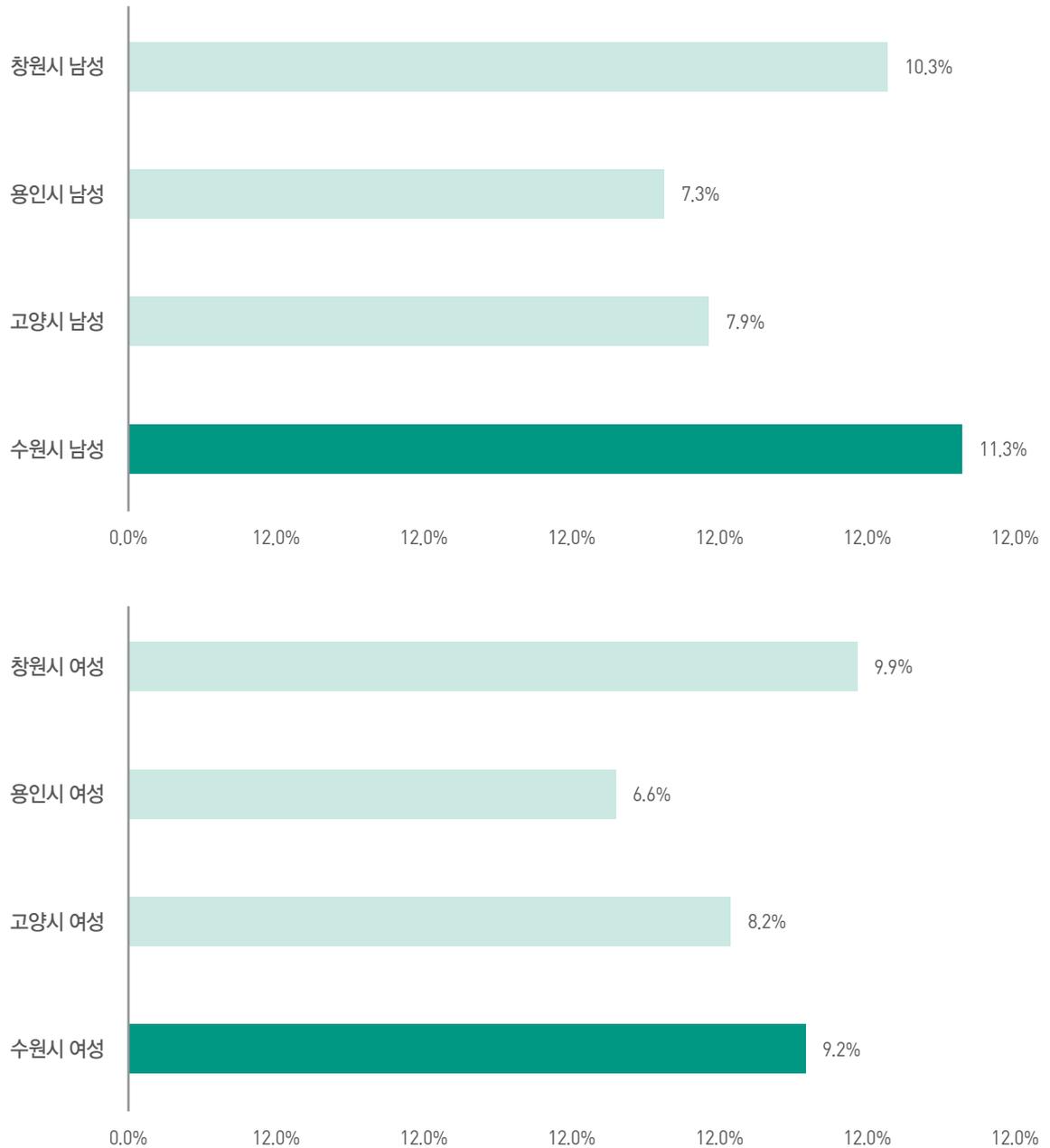
[표 4] 2000년~2017년 전국 및 경기도 성별 1인 가구수

구분	성별	2017	2016	2015	2010	2005	2000	'00년~'17년 연평균 증감	'10년~'17년 연평균 증감
전국	계	5,619	5,398	5,203	4,142	3,171	2,224	9.0%	5.1%
	남성	2,792	2,676	2,593	1,924	1,418	945	11.5%	6.4%
	여성	2,827	2,722	2,610	2,218	1,753	1,279	7.1%	3.9%
경기도	계	1,125	1,068	1,026	777	563	338	13.7%	6.4%
	남성	608	575	556	403	289	168	15.4%	7.2%
	여성	517	493	470	374	274	170	12.0%	5.4%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세대 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수정

- 수원시의 남성 1인 가구수는 유사 규모의 타지역 대비 많은 수준임
 - 2017년 기준, 수원시의 남성 1인 가구수는 69,668세대로 여성 55,343세대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남성 55.7%, 여성 44.3%)

- 이는 전체 인구수를 고려한 유사 규모의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월등하게 높은 상황임
- 2017년 기준, 남성 인구수 대비 남성 1인 가구수 비율상으로 수원시는 11.3%에 해당되며, 이는 인구 100만 이상의 지자체 중에서도 남성의 1인 가구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됨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7,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인구-수정사용

[그림 3]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의 성별 인구 대비 1인 가구 점유율

[표 5] 2010년~2017년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 성별 1인가구수

구분	성별	2017	2016	2015	2010	'10년~'17년 연평균 증감
수원시	계	125	120	114	93	4.9%
	남성	70	66	64	51	5.3%
	여성	55	53	50	42	4.5%
고양시	계	81	77	75	58	5.5%
	남성	39	37	37	27	6.3%
	여성	42	40	38	31	4.8%
용인시	계	69	65	63	41	10.0%
	남성	36	34	33	20	11.0%
	여성	33	31	29	20	8.9%
창원시	계	106	103	100	84	3.8%
	남성	55	54	52	42	4.4%
	여성	51	50	48	42	3.1%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10, 2015, 2016, 2017, 성, 연령 및 세대구성별 인구수정

3 연령별 1인가구 점유 현황

- 우리나라의 전체 연령별 1인 가구수는 25~34세 연령 구간이 가장 많으며, 55세~59세 구간에서 재차 증가 후 그 수가 감소함
 -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체 1인 가구수 중 25~29세 사이의 가구수는 568,288세대로 가장 많으며, 연이어서 30~34세가 516,827세대로 학업을 마치고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연령 부터 결혼 이전인 30대 초반까지 1인 가구수가 집중되어 있음
 - 35세 이후 1인 가구수는 점차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과거에 비하여 그 수가 결코 적지 않은 상황으로 혼인 연령의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파악됨 (35세~39세 : '10년 364,095세대 ▶ '17년 451,684세대)
 - 55세~59세 구간의 최근 7년 간 연평균 증감율은 13.1%로 가장 높으며, 이는 중년에 이른 미혼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이혼과 사별 등 사유가 복합됨

[표 6] 2000년~2017년 전국 및 경기도 연령별 1인 가구수

구분	성별	2017	2016	2015	2010	2005	2000	'00년~'17년 연평균 증감	'10년~'17년 연평균 증감
전국	15~19세	61,008	62,592	57,959	48,540	43,738	45,958	1.9%	3.7%
	20~24세	393,503	391,628	367,152	272,226	268,041	196,448	5.9%	6.4%
	25~29세	568,288	537,780	519,871	490,847	410,775	317,752	4.6%	2.3%
	30~34세	516,827	519,528	533,193	426,747	363,655	233,682	7.1%	3.0%
	35~39세	451,634	429,109	420,129	364,095	265,793	181,582	8.7%	3.4%
	40~44세	407,777	408,807	428,605	313,421	235,831	165,931	8.6%	4.3%
	45~49세	455,033	434,237	421,153	314,894	238,269	129,079	14.9%	6.4%
	50~54세	435,035	430,168	430,941	323,209	188,972	116,896	16.0%	4.9%
	55~59세	512,691	481,691	446,608	267,512	177,063	129,209	17.5%	13.1%
	60~64세	445,869	407,575	354,599	254,265	195,129	163,892	10.1%	10.8%
	65~69세	359,563	335,978	313,584	272,984	234,901	187,682	5.4%	4.5%
	70~74세	313,648	310,716	308,780	300,099	237,426	168,473	5.1%	0.6%
	75~79세	329,899	304,340	288,138	262,765	178,521	116,137	10.8%	3.6%
	80~84세	229,716	215,488	197,240	156,371	95,422	50,368	20.9%	6.7%
85세 이상	138,136	127,931	115,427	74,146	36,438	20,030	34.7%	12.3%	
경기도	15~19세	7,307	7,691	7,602	6,021	5,973	4,666	3.3%	3.1%
	20~24세	53,631	51,968	50,199	37,062	40,438	27,137	5.7%	6.4%
	25~29세	110,695	103,092	99,362	101,552	86,099	57,625	5.4%	1.3%
	30~34세	114,390	114,909	118,409	101,232	85,301	47,186	8.4%	1.9%
	35~39세	107,953	102,362	100,540	90,335	62,463	36,763	11.4%	2.8%
	40~44세	99,875	99,784	103,995	74,828	51,907	30,305	13.5%	4.8%
	45~49세	108,492	101,905	98,661	68,621	46,478	20,764	24.9%	8.3%
	50~54세	98,703	96,053	95,158	62,384	31,989	16,945	28.4%	8.3%
	55~59세	108,169	99,959	90,935	46,308	27,646	17,630	30.2%	19.1%
	60~64세	87,417	78,549	66,537	41,577	28,615	20,305	19.4%	15.8%
	65~69세	64,778	59,551	55,634	42,392	31,457	21,548	11.8%	7.5%
	70~74세	55,535	53,457	51,266	42,939	29,591	18,096	12.2%	4.2%
	75~79세	52,678	47,982	44,190	34,330	20,795	11,758	20.5%	7.6%
	80~84세	34,717	32,007	27,890	19,089	10,313	4,881	36.0%	11.7%
85세 이상	20,182	18,636	16,079	8,684	3,846	1,870	57.6%	18.9%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세대 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수정

- 수원시의 1인 가구수는 25~29세 연령 구간에서 가장 많으며, 유사 규모의 타지역 대비 많은 수준임
 - 2017년 기준, 수원시의 1인 가구수 중 25~29세 사이의 가구수는 19,422세대로 가장 많으며, 연이어서 30~34세가 16,452세대로 많은 세대를 점유하고 있음
 - 특히, 유사 규모의 비교 지자체 중 고양시와 창원시의 경우, 장년 연령 구간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반면, 수원의 경우 전국 평균과 유사하게 젊은 청년 세대의 1인 가구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그러나, 수원시의 25~29세 구간의 젊은 청년 1인 가구수는 2010년 이후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어(연평균 증감율: '10년~'17년 -0.2%) 향후 1인 가구의 주요 점유 연령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수원시를 비롯한 유사 규모의 지역에서 55세 이상의 장년층과 노년층 1인 가구수 증가율은 높은 수준임
 - 수원시의 55~59세 구간의 1인 가구수는 2010년 이후 연평균 18.2% 증가하고 있으며, 이어서 60~64세 구간도 15.6%로 높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유사 규모의 비교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 현황과 마찬가지로 중년에 이른 미혼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이혼과 사별 등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창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수원시 포함) 80세 이상의 초고령 1인 가구수의 증가가 전국 평균보다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어, 초고령 노인 1인 가구 문제가 곧 도시 문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표 7] 2000년~2017년 인구 100만 이상 지자체 연령별 1인 가구수

구분	성별	2017	2016	2015	2010	'10년~'17년 연평균 증감
수원시	15~19세	787	856	812	980	-2.8%
	20~24세	8,710	8,657	7,989	8,141	1.0%
	25~29세	19,422	18,844	17,917	19,757	-0.2%
	30~34세	16,452	16,341	16,678	14,485	1.9%
	35~39세	12,992	12,183	11,759	9,937	4.4%
	40~44세	10,510	10,368	10,610	7,484	5.8%
	45~49세	10,529	9,891	9,343	6,702	8.2%
	50~54세	8,991	8,723	8,620	5,906	7.5%
	55~59세	9,813	9,241	8,360	4,321	18.2%
	60~64세	7,731	7,021	6,090	3,692	15.6%
	65~69세	5,698	5,232	4,889	3,484	9.1%
	70~74세	4,745	4,510	4,323	3,264	6.5%
	75~79세	4,217	3,772	3,508	2,587	9.0%
	80~84세	2,735	2,488	2,132	1,471	12.3%
85세 이상	1,674	1,423	1,214	658	22.1%	
고양시	15~19세	454	426	450	264	10.3%
	20~24세	3,016	2,852	2,702	2,144	5.8%
	25~29세	6,835	6,262	6,058	6,982	-0.3%
	30~34세	7,312	7,549	7,920	7,625	-0.6%
	35~39세	7,389	7,308	7,268	7,927	-1.0%
	40~44세	7,827	8,076	8,757	6,286	3.5%
	45~49세	8,920	8,309	8,045	5,287	9.8%
	50~54세	7,661	7,350	7,268	4,495	10.1%
	55~59세	7,412	6,914	6,251	3,014	20.8%
	60~64세	5,944	5,313	4,451	2,810	15.9%
	65~69세	4,395	4,115	3,876	3,094	6.0%
	70~74세	4,184	4,219	4,025	3,543	2.6%
	75~79세	4,472	4,078	3,783	2,739	9.0%
	80~84세	3,144	2,851	2,517	1,519	15.3%
85세 이상	1,845	1,662	1,411	663	25.5%	

구분	성별	2017	2016	2015	2010	'10년~'17년 연평균 증감
용인시	15~19세	1,001	995	762	418	19.9%
	20~24세	6,391	6,154	5,345	2,554	21.5%
	25~29세	8,143	7,573	7,301	5,172	8.2%
	30~34세	7,139	7,186	7,421	5,258	5.1%
	35~39세	6,458	5,948	6,022	4,898	4.5%
	40~44세	5,734	5,795	6,168	3,801	7.3%
	45~49세	6,151	5,557	5,372	3,243	12.8%
	50~54세	4,927	4,748	4,711	2,888	10.1%
	55~59세	5,267	4,879	4,507	2,331	18.0%
	60~64세	4,614	4,230	3,646	2,403	13.1%
	65~69세	3,677	3,544	3,368	2,476	6.9%
	70~74세	3,519	3,257	3,118	2,210	8.5%
	75~79세	3,133	2,771	2,463	1,649	12.9%
	80~84세	1,954	1,747	1,528	981	14.2%
85세 이상	1,125	1,019	908	524	16.4%	
창원시	15~19세	577	631	621	611	-0.8%
	20~24세	4,199	4,315	4,347	4,255	-0.2%
	25~29세	8,116	8,306	8,623	10,559	-3.3%
	30~34세	9,460	9,998	10,635	9,757	-0.4%
	35~39세	9,343	9,205	9,019	8,054	2.3%
	40~44세	8,766	8,850	9,158	6,932	3.8%
	45~49세	9,754	9,366	8,998	7,035	5.5%
	50~54세	9,422	9,534	9,536	7,557	3.5%
	55~59세	11,437	10,820	9,996	6,321	11.6%
	60~64세	10,238	9,408	8,169	5,226	13.7%
	65~69세	7,693	7,087	6,241	4,866	8.3%
	70~74세	5,792	5,474	5,490	5,036	2.1%
	75~79세	5,393	5,134	4,792	4,212	4.0%
	80~84세	3,592	3,372	3,058	2,263	8.4%
85세 이상	1,918	1,785	1,637	988	13.4%	

자료 : 통계청, 인구총조사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세대 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수정

4 수원시 1인 가구 현황(2017 수원시 사회조사보고서)

1) 일반 현황 및 주거 환경

- 수원시 1인 가구의 교육정도는 타 가구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배우자 부재에 따른 1인 가구 구성으로 이루어짐
 - 2017 수원시 사회조사 결과, 1인 가구를 구성하는 가구의 교육정도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19.6%로 타 가구 대비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혼인 상태는 미혼 비율이 45.3%로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사별과 이혼 비율도 높게 나타남으로써, 일반적인 1인 가구의 구성 사유에 따른 구성임을 알 수 있음

[표 8] 수원시 가구원수별 교육정도 및 혼인상태 비율

구 분	교육정도					혼인상태				
	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학교 졸업	대학원 졸업	미혼	배우자 있음	사별	이혼	
2017	8.2	10.0	35.2	41.3	5.4	31.8	57.8	5.4	5.0	
가구원 수별	1인 가구	19.6	9.6	33.1	34.9	2.8	45.3	11.4	24.4	18.9
	2인 가구	11.9	11.3	39.7	32.6	4.5	21.7	67.2	5.3	5.9
	3인 가구	4.8	7.4	35.9	46.3	5.6	30.9	62.9	2.2	3.9
	4인 가구	3.7	10.3	31.0	48.6	6.4	34.1	63.6	1.3	1.0
	5인 가구 이상	9.1	13.8	37.1	33.3	6.6	37.4	54.9	5.5	2.3

- 1인 가구의 거주중인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가장 높게 나타남
 - 1인 가구의 주택유형은 단독주택이 52.0%로 전체 평균 대비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택유형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매우 낮게 조사됨

[표 9] 수원시 가구원수별 거주 주택유형 비율

구 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기타	
2017	28.0	54.8	12.5	4.7	
가구원 수별	1인 가구	52.0	29.0	10.8	8.2
	2인 가구	28.8	49.8	16.2	5.2
	3인 가구	17.1	68.5	11.5	2.9
	4인 가구	10.6	75.5	11.4	2.5
	5인 가구 이상	17.8	71.5	9.0	1.7

※ 단독주택에 다가구주택 포함됨

- 1인 가구의 주택만족도는 보통 수준이며, 점유형태는 보증금있는 월세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1인 가구의 주택만족도 조사결과, “매우만족” 응답 비율은 가장 낮았지만, “불만족”과 “보통”이 평균 수준으로 조사됨에 따라, 타 가구 대비 큰 수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됨
 - 반면에, 점유형태에 있어서 “보증금있는 월세”의 유형이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장기적 차원의 주거 여건은 좋지 않을 것으로 파악됨

[표 10] 수원시 가구원수별 주택만족도 및 점유형태 비율

구 분	주택만족도					점유형태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2017	15.3	32.3	38.0	12.0	2.4	51.8	19.5	25.1	0.9	2.6	
가구원 수별	1인 가구	13.1	32.9	38.3	11.9	3.8	24.2	22.4	43.6	2.5	7.3
	2인 가구	13.5	32.8	40.3	11.4	2.0	58.0	17.3	22.4	0.7	1.6
	3인 가구	15.6	29.2	39.3	13.3	2.7	58.6	23.1	17.0	0.0	1.3
	4인 가구	15.8	35.2	35.4	11.8	1.8	66.1	17.8	15.5	0.3	0.3
	5인 가구 이상	21.0	30.5	35.9	9.9	2.7	70.7	8.6	20.6	0.0	0.0

- 주거지만족도 중 불만족 응답에 대한 세부 사유로는 “주거시설 열악”이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주차시설부족”과 “치안방법불안”이 타 가구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1인 가구의 주택유형이 단독주택에 집중된 것과 연계하여 노후 단독주택의 경우, 주거시설의 쾌적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골목길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음

[표 11] 수원시 가구원수별 거주지 불만족한 주된 이유 비율

구 분	교육 환경 열악	교통 불편	주거 시설 열악	편의 시설 부족	주차 시설 부족	치안 방법 불안	기타
2017	7.1	9.8	19.5	23.2	15.0	15.2	10.1
가구원 수별	1인 가구	0.0	12.0	25.2	14.0	18.1	11.7
	2인 가구	2.6	10.9	36.0	13.1	11.0	11.3
	3인 가구	10.2	9.9	14.5	20.5	13.4	16.7
	4인 가구	11.0	7.4	13.0	29.7	17.5	4.9
	5인 가구 이상	5.3	11.5	14.5	40.0	15.9	3.2

2) 복지 및 노후

○ 필요한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에 대해 1인 가구는 노인복지사업 확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1인 가구의 경우, 혼자 거주할 뿐 아니라 수익을 얻기 위한 경제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본인의 노년 생활에 대한 염려에 따라 노인복지사업 확대를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 분야로 선택한 것으로 파악됨

[표 12] 수원시 가구원수별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 선호 비율

구 분		출산, 보육지원	노인복지 사업 확대	장애인복지 확대	외국인 지원 사업	요구호 보호 사업	기타
2017		41.5	32.8	7.5	1.1	16.1	1.0
가구원 수별	1인 가구	31.1	40.5	9.0	0.2	18.4	0.7
	2인 가구	33.2	40.1	6.4	1.0	19.0	0.3
	3인 가구	45.3	29.0	8.0	1.2	15.4	1.1
	4인 가구	47.2	28.3	7.2	1.0	14.5	1.7
	5인 가구 이상	46.2	29.6	8.6	2.1	12.7	0.9

○ 필요한 사회복지 우선 지원 분야에 대해 1인 가구는 노인복지사업 확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남

- 1인 가구의 경우, 혼자 거주할 뿐 아니라 수익을 얻기 위한 경제활동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본인의 노년 생활에 대한 염려에 따라 노인복지사업 확대를 가장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 분야로 선택한 것으로 파악됨

[표 13] 수원시 가구원수별 노인복지사업 분야 선호 비율

구 분		간병 목욕 서비스	가사서비스 (집안청소 등)	식사 제공	이야기 상대	취업 알선	건강 검진	여가활동 프로그램	정보화 등 각종 교육	기타
2017		16.0	14.7	4.7	6.1	22.5	20.9	11.1	3.5	0.5
가구원 수별	1인 가구	13.2	15.4	9.9	9.2	15.2	29.1	5.4	1.7	0.8
	2인 가구	11.7	19.0	4.1	2.2	24.3	23.8	11.9	2.1	0.8
	3인 가구	19.2	13.0	4.3	6.8	22.2	19.7	11.3	3.5	0.0
	4인 가구	15.9	11.3	2.5	7.4	27.8	16.1	11.9	6.6	0.5
	5인 가구 이상	27.5	13.8	5.9	9.8	11.2	14.9	14.4	2.4	0.0

○ 노인이 느끼는 문제에 대하여 1인 가구를 비롯한 모든 가구에서 경제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선택함

- 노인으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구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경제문제 이외에 건강문제와 외로움과 소외감 같은 심리적 사항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표 14] 수원시 가구원수별 노인이 느끼는 문제 비율

구 분	경제 문제	직업 문제	건강 문제	외로움, 소외감	이성 결혼 문제	효경로 의식 약화	여가 활용 문제	복지 문제	자녀 문제	기타	
2017	41.2	5.4	18.2	18.4	0.1	2.0	3.5	10.7	0.4	0.0	
가구원 수별	1인 가구	41.8	6.1	21.7	16.7	0.3	1.9	3.1	8.2	0.2	0.0
	2인 가구	39.4	5.9	21.7	18.1	0.3	1.9	2.2	10.4	0.2	0.0
	3인 가구	42.5	6.1	16.0	18.0	0.1	1.8	4.4	10.5	0.5	0.2
	4인 가구	42.5	4.5	14.6	19.2	0.1	2.4	4.5	11.9	0.3	0.0
	5인 가구 이상	36.5	3.8	22.8	20.4	0.0	2.1	2.0	11.8	0.5	0.0

○ 노후에 대한 준비로 1인 가구는 5인 이상 가구에 이어 다음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혼자 경제활동을 해야만 하는 1인 가구의 특성상 노후 준비가 일반적인 가구 대비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됨

[표 15] 수원시 가구원수별 노후에 대한 준비 및 방법 비율

구 분	노후 준비함 (만19세 이상)	노후 준비 방법								
		국민 연금	기타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 급여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부동산 운용	주식, 채권	기타	
2017	65.5	77.5	7.3	27.9	10.0	38.1	7.6	1.1	30.4	
가구원 수별	1인 가구	61.2	72.3	5.8	25.5	8.8	44.7	6.8	0.0	36.2
	2인 가구	65.3	74.0	7.7	23.0	7.6	42.9	10.7	1.6	32.5
	3인 가구	67.8	77.6	8.7	27.9	9.8	36.9	6.2	1.8	31.0
	4인 가구	67.4	81.8	6.8	32.7	12.6	32.4	7.9	0.8	25.0
	5인 가구 이상	57.1	79.8	4.7	29.3	10.7	38.8	2.5	0.0	34.1

3) 여가 활동

- 음악회 및 연주회 또는 연극과 같은 공연 관람 여부에 대하여 1인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하여 관람한 경험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여가 활동 중 음악회와 연극의 경우, 일반적인 영화 관람보다 관람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됨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경제적 여건과 생활 여건이 따라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상대적으로 관람 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표 16] 수원시 가구원수별 여가 활동(음악회 및 연주회 등) 및 관람유형 비율 및 횟수

구 분	관람함	관람 횟수 (평균)	관람유형						
			음악·연주회	관람 횟수 (평균)	연극·마당극·뮤지컬	관람 횟수 (평균)	무용	관람 횟수 (평균)	
2017	64.0	4.9	14.7	2.5	17.4	2.5	1.2	1.8	
가구원 수별	1인 가구	48.0	5.7	10.6	2.1	11.3	2.1	1.1	1.0
	2인 가구	51.8	5.3	13.8	3.0	14.2	2.6	0.6	2.0
	3인 가구	67.7	4.9	13.7	2.2	13.9	2.5	1.4	2.6
	4인 가구	76.1	4.6	17.0	2.4	23.3	2.5	1.6	1.4
	5인 가구 이상	64.8	4.9	14.7	2.7	17.6	3.2	0.5	1.0

- 영화 및 미술관 또는 스포츠와 같은 여가 활동에 대하여 1인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하여 관람한 경험도가 전체적으로 평균 수준으로 조사됨
 - 영화 관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용 및 접근성이 뛰어나 관람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프로 스포츠의 활성화에 따른 야구, 축구 등 경기 관람의 경우에는 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관람에 필요한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 가능함에 따라 관람 경험이 타 가구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표 17] 수원시 가구원수별 여가 활동(영화 및 스포츠 등) 및 관람유형 비율 및 횟수

구 분	관람유형										
	영화	관람 횟수 (평균)	박물관	관람 횟수 (평균)	미술관	관람 횟수 (평균)	스포츠	관람 횟수 (평균)	기타	관람 횟수 (평균)	
2017	91.2	6.2	16.1	2.4	14.3	2.5	22.5	3.2	0.1	2.0	
가구원 수별	1인 가구	93.2	7.3	8.2	2.0	10.2	2.1	27.0	3.2	0.0	0.0
	2인 가구	91.1	6.4	11.3	2.1	11.3	4.0	21.3	3.2	0.0	0.0

가구원 수별	3인 가구	91.3	5.8	15.6	2.2	12.9	2.4	17.6	3.7	0.2	2.0
	4인 가구	90.7	6.1	21.4	2.6	17.9	2.3	26.0	3.2	0.0	0.0
	5인 가구 이상	90.5	6.6	14.6	2.6	15.1	1.9	22.3	2.1	0.6	2.0

○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활동에 대하여 가구별 인원수가 관계없이 TV시청이 가장 높게 조사됨

- 모든 가구에서 휴일 여가 활동으로 TV 시청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 2인 가구의 경우, 이에 대한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됨

[표 18] 수원시 가구원수별 주말 및 휴일의 여가 활동 비율

구 분		TV 시청	문화 예술 관람	문화예술 참여	스포츠 관람	스포츠 활동	관광 활동
2017		47.9	22.8	1.0	3.5	10.1	9.3
가구원 수별	1인 가구	56.9	21.6	0.7	3.1	9.6	2.9
	2인 가구	56.8	17.6	0.7	3.2	10.3	7.1
	3인 가구	46.9	22.1	1.0	3.3	10.1	9.8
	4인 가구	40.2	27.7	1.4	4.8	10.5	13.1
	5인 가구 이상	41.0	24.8	1.1	1.3	8.5	8.9

○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 활동 중 대분류로 구분한 결과, 모든 가구에서 휴식 활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모든 가구에서 휴일 여가 활동 중 휴식 활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인 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타 가구 보다 취미 및 자기계발활동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됨

[표 19] 수원시 가구원수별 주말 및 휴일의 여가 활동 대분류 비율

구 분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취미, 자기 계발활동	휴식 활동	사회 및 기타활동	기타
2017		16.8	8.6	45.2	8.8	1.4
가구원 수별	1인 가구	11.0	5.0	47.1	11.0	2.2
	2인 가구	12.9	6.0	48.8	10.6	1.1
	3인 가구	17.7	10.4	43.7	8.7	1.2
	4인 가구	19.1	10.8	43.2	6.7	1.2
	5인 가구 이상	23.8	7.6	44.2	8.2	2.4

3) 경제 활동

- 1인 가구의 주된 소득원은 근로소득이며, 정부보조금과 친인척보조금의 점유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가구의 주된 소득원으로써 모든 가구가 근로소득으로 나타난 반면, 1인 가구의 경우 타 가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게 조사됨
 - 또한, 1인 가구는 정부보조금과 친인척보조금(용돈)의 점유율이 타 가구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음

[표 20] 수원시 가구원수별 가구의 주된 소득원 비율

구 분	가구의주 근로(사업) 소득	배우자 및 기타 가구원의 근로 (사업)소득	재산 소득	공적·사적 연금 및 퇴직금	정부 보조금	종교 또는 복지단체 보조금	친인척 보조금	기타	
2017	73.1	30.5	8.4	8.0	7.6	0.3	5.7	1.4	
가구원 수별	1인 가구	59.0	5.4	8.1	6.2	17.1	0.5	14.0	4.8
	2인 가구	65.8	30.5	13.9	13.6	8.8	0.4	6.9	0.2
	3인 가구	77.8	45.0	7.3	7.9	3.1	0.0	0.6	0.6
	4인 가구	92.3	41.1	3.5	2.8	0.6	0.3	0.3	0.3
	5인 가구 이상	89.0	53.7	3.7	7.8	0.0	1.2	0.0	0.0

- 1인 가구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원에서 조사되었듯 근로소득 외 정부보조금과 친인척보조금에 의한 소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것으로 파악됨

[표 21] 수원시 가구원수별 가구의 월평균 소득 비율

구 분	100 만원 미만	100 만원~ 200 만원 미만	200 만원~ 300 만원 미만	300 만원~ 400 만원 미만	400 만원~ 500 만원 미만	500 만원~ 600 만원 미만	600 만원~ 700 만원 미만	700 만원 이상
2017	12.5	15.6	16.5	17.0	14.2	8.8	5.1	10.3
가구원 수별	1인 가구	32.8	26.9	17.5	10.1	5.0	3.2	3.0
	2인 가구	11.9	22.1	18.4	18.3	14.3	6.0	6.2
	3인 가구	2.4	9.0	17.0	22.3	16.5	12.6	11.9
	4인 가구	1.6	2.6	12.6	17.8	22.7	13.3	20.8
	5인 가구 이상	0.0	1.2	14.4	19.3	15.5	18.5	21.0

○ 1인 가구의 소비 생활 만족도는 “약간 만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대부분 가구에서 소비 생활 만족도는 보통 이하의 경우가 많지만, 1인 가구의 경우 약간 만족이 타 가구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타 가구에 비하여 자신만을 위한 소비 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른 결과로 파악됨

[표 22] 수원시 가구원수별 소비 생활 만족도 비율

구 분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7		2.6	17.2	52.7	23.5	4.0
가구원 수별	1인 가구	1.6	23.7	46.1	23.4	5.1
	2인 가구	2.7	15.3	56.8	20.9	4.3
	3인 가구	3.2	15.0	53.3	24.1	4.3
	4인 가구	2.4	19.1	51.2	24.0	3.2
	5인 가구 이상	2.3	14.0	52.7	27.6	3.3

○ 1인 가구의 생활비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은 주거비로 조사됨

- 부담스러운 지출로써 주거비는 모든 가구의 응답결과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1인 가구의 경우 특히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이는 1인 가구의 가구 형태로 “보증금있는 월세”가 가장 높게 조사된 것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됨

[표 23] 수원시 가구원수별 부담스러운 지출 비율

구 분		식료품비	주거비	교육비	보건 의료비	의류비	교통 통신비	부담스러운 지출 없음	기타
2017		22.1	23.6	21.1	15.1	0.9	4.4	11.6	1.1
가구원 수별	1인 가구	21.4	30.3	2.0	18.0	1.2	6.5	18.4	2.2
	2인 가구	23.7	24.3	11.2	23.3	0.6	3.8	12.5	0.5
	3인 가구	23.9	22.8	25.8	11.7	1.7	4.0	9.0	1.1
	4인 가구	20.3	17.3	47.4	6.0	0.4	2.0	5.7	1.0
	5인 가구 이상	15.9	14.2	48.7	6.4	0.0	8.0	6.7	0.0

5) 노동 활동

- 1인 가구의 노동 활동에 있어서 평소 경제활동의 종사자 지위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모든 가구의 주된 종사자 지위는 임금근로자이지만 1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근로자 중에서 임시 및 일용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4] 수원시 가구원수별 평소 경제활동의 종사자 지위 비율

구 분		임금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임시	일용			
2017		83.4	76.8	17.3	5.9	7.2	8.2	1.2
가구원 수별	1인 가구	83.7	63.3	23.7	13.0	6.4	9.9	0.0
	2인 가구	82.2	71.7	18.5	9.8	8.2	8.1	1.6
	3인 가구	86.3	80.5	16.5	3.0	6.1	6.8	0.8
	4인 가구	83.6	82.4	14.4	3.2	6.5	8.2	1.6
	5인 가구 이상	74.1	77.6	19.1	3.3	13.2	11.2	1.4

- 고용안정성과 근무환경에 있어서 1인 가구는 “보통”에 대한 응답 비율이 낮은 가운데 불만족에 해당하는 응답의 비율이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25] 수원시 가구원수별 고용안정성 및 근무환경 정도 비율

구 분		고용안정성					근무환경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2017		10.6	27.2	40.8	16.5	4.9	8.3	30.5	42.1	15.7	3.3
가구원 수별	1인 가구	12.5	28.1	34.6	18.5	6.3	10.0	29.4	38.7	19.0	2.8
	2인 가구	7.8	26.0	40.6	19.9	5.8	5.9	30.0	41.8	18.5	3.8
	3인 가구	8.9	26.3	42.6	17.9	4.2	7.0	28.8	41.9	18.1	4.1
	4인 가구	13.2	29.4	41.1	12.6	3.6	11.4	32.5	43.8	9.8	2.5
	5인 가구 이상	11.6	23.4	44.8	12.5	7.7	4.6	32.3	43.1	16.7	3.3

IV.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1 기본방향 설정



[그림 4] 1인 가구 지원 정책 기본방향

- 보완 정책
 - 1인 가구 지원 정책의 핵심은 이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분 중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보편 정책
 - 1인 가구는 세대별 상이하지만 공통적인 어려움이 나타나므로, 세대별 공통적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 시각에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맞춤 정책
 - 1인 가구는 전 연령층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연령에 따라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다르므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수원시 1인 가구 지원정책 개발 방안

1) 돌봄 및 안전 분야

○ 수원형 요양보험서비스 개발

- 1인 가구와 관련된 돌봄 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대표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계층은 여성 노인으로 치매환자가 많아 돌봄서비스 사각지대가 많을 것이라 예측됨(송영신, 2015)
-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 노인 1인 가구는 서비스 기간이 장기화되고, 사용한도액 초과가 우려되며, 현재 장기요양급여는 안전한 생활 지원을 위해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수원형 요양보험서비스 개발이 필요함
-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돌봄에 취약하기 때문에 전 연령을 대상으로 요양보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건강지원 서비스 확대

- 건강 및 응급 대처 역량의 부족은 여성뿐 아니라 남성 1인 가구에게도 심각한 위협 요인이므로, 건강지원 서비스를 전 연령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질병 가능성을 예측하여 건강 위협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서 장기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절감이 가능함

○ 1인 가구의 안전서비스 확대

- 1인 가구는 주거지의 취약성으로 안전에 대한 걱정이 많으므로, 이를 위해 안전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수원시는 싱글우먼 하우스 케어, U-Care 케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안전문제의 경우 성별과 연령에 관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경제 및 주거 분야

○ 1인 가구 맞춤형 주택지원

- 1인 가구의 소비 중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은 주거비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특히, 청년 1인 가구는 주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계층으로, 소득의 많은 부분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어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노후 소득보장정책 강화

- 중년층과 노년층의 1인 가구는 불안정한 소득으로 인해 제대로 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자체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정책이 필요함
- 따라서 소득보장정책과 일자리 지원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이 필요함

3) 사회 및 복지분야

○ 1인 가구의 가족 인정 및 실태조사를 위한 조례 제정

- 1인 가구가 일반화되고 있으나 하나의 생활단위, 즉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따라서 1인 가구와 관련된 조례 제정을 통해 1인 가구를 단독 생계로 유지하는 생활단위인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삶의 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지속적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세대별 1인 가구의 공동생활가정 추진

-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의 경우, 1인 가구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들의 외로움, 고독함 등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회 관계망 형성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세대별 공동생활가정을 통해 1인 가구의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3 **향후 연구 방향**

○ 생애주기별 1인 가구 특성 및 정책 제언 연구 필요

- 현 연구는 1인 가구 현황만을 분석하였으므로, 향후에는 1인 가구의 연령별 특성 및 이에 따른 정책 제언 연구가 필요함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6. 경기WiFi 28권.
- 대구여성가족재단. 2013. 1인 가구를 위한 섬세한 정책이 필요하다, 대구여성가족 BRIEFING 제3호.
- 서울시복지재단. 2017. 프랑스 1인가구 지원정책. 복지이슈 Today 54.
- 송영신. 2015. 여성 노인 1인 가구의 실태 및 정책적 개선방안. 이화젠더법학 7(2).
- 수원시. 2017 수원시 사회조사 보고서.
- 이여봉. 2017.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017년 10월.
- 장민선. 2016. 1인가구 지원에 관한 헌법적 고찰. 유럽헌법연구 21.
- 인천발전연구원. 2017. 1인 가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7. 2017 한국 1인 가구 보고서.

보도 자료

- 수원지속가능도시재단(2017.12.27.). 수원도 1인가구가 대세.
- daily pop(2018.04.20.). 1인 가구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기타 자료

- 통계청(2000). 인구총조사
- 통계청(2005). 인구총조사
- 통계청(2001). 인구총조사
- 통계청(2015). 인구총조사
- 통계청(2016). 인구총조사
- 통계청(2017). 인구총조사



발행인 | 이재은

발행처 | 수원시정연구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031.220.8001

www.suwon.re.kr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수원시의 정책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